



지난 91년 오리고기는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이후 매년 막대한 량의 오리고기가 수입되어왔다. 지난 91년도 이후 2001년 말 현재까지 수입된 오리고기의 양을 살펴보면 약 4만5천톤이 수입되어 매년 4천1백톤 내외의 오리고기가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국내에서 수출된 오리고기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리부산물 즉 오리혀, 오리발, 오리똥집 등이 동남아로 미미한 양이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되기 이전인 80년대 말을 전후하여 국내산 오리고기가 일본으로 수출한 예가 있는 것으로 오리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오리고기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지난 80년대를 제외하면 부산물로 미미한 량이 수출되고 순수한 오리고기가 수출된 것은 수입개방 이래 지난해가 처음 수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국내 오리업계는 지금까지 오리고기 생산이 내수물량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해 왔으며 수출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오리사육 여건을 감안할 때 주요 경쟁상대국인 중국에 비해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 역시 크게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국내산 오리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된 상황은 국내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체에 걸쳐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으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국내 오리고기의 일본 수출은 국내 오리고기 업계가 수출을 위해 큰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나 지원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국내 오리업이 수입개방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성장했듯이 오리고기 수출 역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최단시일에 많은 양의 오리고기를 수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물론 지난해 국내산 오리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국산 오리고기의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가격경쟁력을 들어 장기적인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오리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 확대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오리고기 주요 수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리고기의 수출방안 모색은 업계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대 명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오리고기 수출을 위한 문제점과 과

제 등을 그간 오리고기를 수출한 수출업체 그리고 일본시장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진단해보자.

수출현황

지난해 국내산 오리고기가 일본으로 처음 수출된 것은 10월 25일 화인코리아에서 10톤의 오리고기를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선적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오리고기의 대일본 수출은 많은 바이어를 통해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이어 전북 정읍에 소재한 혜성농산이 11월 수출에 가담하였으며 12월에는 충북 음성군의 모란식품이 수출에 합류했다.

한국오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지난해 오리고기 수출물량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전남 나주의 화인코리아 3달에 걸쳐 총 122.6톤을 수출하였으며 금액상으로는 75만불어치 환율 1,300원대비 9억7천5백만원 상당을 수출했다. 또 혜성농산은 11월부터 2달에 걸쳐 73.6톤을 수출하였으며 금액상으로는 36만4천불어치를 수출하여 4억7천3백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모란식품은 12월

기획특집

한차례에 걸쳐 5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은 2만5천불어치로 3천2백만원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수출업체들이 수출한 오리고기는 가슴살과 다리살 등 부분육 형태로 수출이 이뤄졌으며 일부업체의 경우 지육형태의 통오리를 일부 수출하였으나 부분육이 대부분이고 부분육의 부위별 수출비중은 50:50정도로 알려졌다.

〈표1〉 2001년 오리고기 수출현황

수출업체명	수출량(톤)	수출금액(달러)	수출형태
화인코리아	122.6	250,000	부분육(가슴살,다리살)
혜성농산	73.67	364,000	부분육(가슴살,다리살)
모란식품	5	25,000	부분육(가슴살,다리살)
합계	201.27	1,139,000	

이로서 지난해 순수한 고기형태로 수출된 오리고기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201.27톤이 수출되어 1백13만9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수출업체별 kg당 오리고기 수출가격을 분석해 보면 화인코리아의 경우 6.1불, 환율 1,300원 기준시 kg당 7,952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혜성농산의 경우는 4.94불로 kg당 6,423원, 또 모란식품 역시 비슷한 가격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동향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매년 막대한양의 오리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인코리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량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98년도 1만1천2백10톤에 머물던 오리고기 수입량은 99년 1만2천7백17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고 2천년에 들어서는 1만4천7백89톤으로 전년대비 16% 늘어나 매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표2〉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 변화

년도별	수입량(톤)	수입가격(엔)	kg당 가격(원)
98	11,210	4,876,350	4,481
99	12,717	4,489,101	3,636
00	14,789	4,200,076	2,925

일본으로 오리고기 수출하는 주요 대상국을 보면 〈표3〉과 같다. 일본의 오리고기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대만, 프랑스,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 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천년을 기준으로 주요 국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1만2천2백43톤을 수출하여 전체 수입량의 약83%를 점유하였고 태국이 1천35톤을 수출, 전체 수입량의 6.9%를 차지했다. 따라서 일

〈표3〉 일본의 국별 수입량 변화

구 분	중 국	프랑스	태 국	미 국	대 만	말레이시아	기 타	합 계
98	냉장통오리	0.5	7	-	0.4	-	-	7.9
	내장장육	208	61	-	0.7	0.5	0.2	270.4
	냉동통오리	1,317	17	218	220	27	-	1,799
	냉동장육	6,018	440	1,053	82	1,475	48	9,132
	합 계	7,543.5	525	1,271	303	1,502.5	48	1,120.9
99	냉장통오리	1.6	5	-	-	-	-	6.7
	내장장육	387	60	-	-	8	-	455
	냉동통오리	1,432	14	120	194	45	-	1,805
	냉동장육	7,796	452	1,226	48	919	-	10,450
	합 계	9,617	531	1,346	242	972	-	12,717
00	냉장통오리	7.7	7.7	-	-	-	-	15.4
	내장장육	658	62	-	-	-	-	720
	냉동통오리	1,415	9	204	216	26	-	1,878
	냉동장육	10,162	432	831	64	687	-	12,176
	합 계	12,243.7	510.7	1,035	280	713	-	14,789

본의 오리고기 수입량의 90%이상이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오리고기 국별 수입량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만에서 7백10톤의 오리고기를 수출하여 전체 수입량의 48%를 차지하였고 프랑스는 5백10톤을 수출하여 3.4%, 미국이 2백80톤으로 1.9%, 캐나다와 덴마크에서 미미한 양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오리고기의 주요형태를 보면 냉동장육이 1만2천1백76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82%를 차지하여 수입량의 대부분이 뼈를 제거한 정육형태로 수입되어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냉동 통오리가 1천8백78톤으로 12.7%를 차지하였으며 냉장정육은 7백20톤으로 4.8%, 냉장 통오리는 15톤으로 0.1%의 미미한 양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천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가격을 분석해보면 수입오리고기의 kg당 평균수입가격은 2천9백25원선으로 매우 낮았다.

형태별 수입가격은 냉장 통오리의 kg당 평균가격이 6천1백59원, 냉장정육은 kg당 4천5백42원으로 비교적 높는데 반해 냉동 통오리는 kg당 평균 2천3백59원으로 냉장 통오리 가격의 38% 수준이었고 냉동정육은 kg당 2천9백15원

기획특집

으로 냉장정육의 64%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별 수입가격에서 주목되는 것은 프랑스산으로 냉장정육 수입가격이 kg당 1만2천3백50원으로 중국산 3천8백원에 비해 325% 높았고 냉동정육의 경우도 kg당 9천2백80원으로 중국산 2천5백원에 비해 364% 높은 가격에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냉장 통오리 역시 kg당 7천원선으로 중국산 5천3백원에 비해 132%, 냉동 통오리 역시 4천79원으로 중국산 2천2백56원에 비해 180% 높은 가격에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 수출업체에서 수출한 오리고기는 kg당 평균 5.66불로 원 달러당 기준환율 1,250원시 7천3백56원 내외로 분석됐다. 그런데 수출업체 대부분이 부위별 수출가격을 가슴살의 경우 kg당 7불선, 다리살의 경우 5불선 내외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화기준 가슴살은 kg당 8천7백50원, 다리살은 kg당 6천2백50원으로 비교적 좋은 조건이었다.

지난해 국내 오리고기 수출업체들의 이같은 수출가격은 경쟁상대국들이 지난 2천년도에 수출한 수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수입이 많은 냉동정육을 기준으로 중국산 2천5백44원에 비해 2.9배 높은 가격이며 태국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산 9천2백80원에 비해서는 20% 싼 가격으로 분석

수출경쟁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해 국내 오리고기
 <표4> 일본의 국별 수입 가격변화

구 분	중 국	프랑스	태 국	미 국	대 만	말레이시아	기 타	평균가격	전체평균가격
98	냉장통오리	7,910	9,795	-	5,150	-	-	9,425	4,481
	내장장육	8,013	17,314	7,519	10,228	-	11,206	10,125	
	냉동통오리	2,894	5,727	3,296	3,677	2,781	(한국)	3,069	
	냉동정육	3,904	13,472	4,439	4,450	4,831	3,966	4,584	
99	냉장통오리	2,874	8,930	-	-	-	-	7,416	3,636
	내장장육	5,572	14,698	-	-	-	-	6,808	
	냉동통오리	2,441	4,923	2,678	3,224	2,616	-	2,565	
	냉동정육	3,152	11,083	3,945	4,347	4,172	2,884	3,687	
00	냉장통오리	5,325	7,004	-	-	-	-	6,159	2,925
	내장장육	3,801	12,350	-	-	-	-	4,542	
	냉동통오리	2,256	4,079	2,369	2,997	2,245	3,337	2,359	
	냉동정육	2,544	9,280	3,481	3,543	3,636	-	2,915	

됐다.

이와 같이 국내 수출 가격이 경쟁 상대국에 비해 높은 현실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생문제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 역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난해 수출한 오리고기의 수출가격은 특수상황으로 차제하고 국내산 오리고기가 장기적인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국내산 오리고기 생산비와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지난해 국내산 오리고기의 평균 경영비수준과 도매시장 유통가격은 <표5>로 추정된다. 즉 육용오리 생체수당 경영비는 4천원선 내외이고 평균 거래가격은 4천2백41원 내외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5> 2001년 오리 경영비 및 도매유통가격

항 목	비 용	평균 산지가격	지육수당유통 가 능 가 격	지육수당 유통가격
새끼오리 구입비	687			
사료비	2,250(7.5×300원)			
깔짚	250			
약품비	200			
난방비	200			
인건비	300			
기타	150			
경영비 합계	4,037	4,241원	4,841원	5,325원

평균 산지가격에 도계비와 물류비를 포함할 때 지육수당 경영비는 4천8백41원에 달하게 되고 여기다 유통업체의 유통마진 10%시 지육수당 유통가능가격은 5천3백25원에 달하게 된다.

또 오리수당 정육가격은 지육수당 유통가능가격에 수당가공비 3백원을 포함하여 5천6백25원내외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해 오리고기 지육 kg당 유통가격은 최소 2,662원으로 분석되며 정육kg당 유통가격은 4,326원선 내외로 추정된다.

이같은 자료를 기초로 국내 오리고기의 수출가능가격을 비교해 볼 때 지육형태의 통오리의 경우 kg당 3천원선, 뼈를 제거한 정육의 경우 kg당 5천원선 내외일 때 국내 판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수출이 가능한 가격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자료를 기초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가

기획특집

격경쟁력을 비교하면 냉동정육의 경우 주요수출국인 중국산에 비해 200% 이상 높고 태국산에 비해서는 144%, 대만산에 비해서는 137%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프랑스산에 비해서는 46% 낮은 가격으로 분석되어 오리고기 주요수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오리고기 생산 시스템 하에서 오리고기 주요수출국과의 가격경쟁은 지난한 것으로 풀이되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을 살리면서 생산시스템 개선에 의한 생산비와 품질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은 부위를 주력화하여 수출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요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위생문제가 항상 상재해 있어 수출이 불안한 구조인데 반하여 국내 오리업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장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일면을 살린다면 가격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안정적 수출역시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출의 걸림돌

지난해 오리고기를 수출한 주요업체들의 수출에 따른 어려움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문제가 있다. 제품의 품질문제에 있어 지적되는 사항은 도체품에 잔모가 남아있어 외관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잔모치리를 위한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수출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들고 있다.

또 수출작업을 위한 도축시설의 문제이다. 지난해 수출한 수출업체 중 2개소는 자체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서 큰 무리가 없었으나 작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업체는 수출물량 도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초기 수출분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일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도축장이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위생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생적인 도축시설의 준설 및 기 도축장의 시설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일본 시장의 시장분석과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출가격 등에 대한 자료분석의 부재문제와 수출업체별 정보 교환 부재도 수출에 따른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할 수 있는 부위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료육 생산 시스템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생산시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서 생산시스템의 개선은 종오리 개량에 의한 부화장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보다 품질 좋은 육용오리 생산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종오리 개량을 위해 한 업체가 외국 육종회사의 GP를 도입해 보다 생산성이 좋은 새끼오리 생산에 돌입하긴 했으나 국내 생산중인 종오리의 상당부분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육용오리를 종오리로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화장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 없으며 여기서 생산된 새끼오리가 육용오리 사육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생산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오리사육농장의 시설개선이다. 현재

오리사육농장의 상당부분이 간이축사형 사육시설에서 육용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육농장의 생산성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다 현대화된 사육시설에서 연중 고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육용오리 사육시설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밖에 현재 육용오리 사육농장 생산성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에 의해 질병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육농장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수출 활성화방안

일본의 연간 오리고기 소비량은 정확치 않다. 단지 연간 오리고기 수입량이 1만5천톤 내외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이 지난 2천년에 수입한 오리고기는 일반 육용오리 사육수수료 환산시 1천3백70만수내외의 물량이다. 이는 국내 육용오리 연간 생산량 2천6백70만수 대비 51%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따라서 오리고기의 일본수출은 국내 오리업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제 2의

기획특집

과제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국내 고기 수입량이 평균 4천톤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오리업이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출은 명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수출산업으로 재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오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한 경쟁력 확보 위에 수출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과거 국내 축산업은 수입개방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축산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제 국내 오리업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kg에 달하고 국내 축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위 정도의 업종으로 부상했으며 수출가능성이 큰 업종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 스스로 발전해온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라도 오리업의 기초적인 점검에 의해 제도적 장치와 취약한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분류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내 오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종오리를 개량가축에 포함시켜 생산성이 좋은 새끼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오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검정소의 설립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또 연중 좋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오리 사육농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리계열화 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용오리 생산비와 생산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오리사육농장에 큰 피해를 주어온 오리전염성 간염을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만큼 이 질병에 의한 오리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오리전염성 간염 근절을 위한 방역예산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인 백신투약에 의해 전 오리업계에 만연되어있는 질병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리고기 위생고시 확대를 위한 도축장 지원사업을 현재 정부가 200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HACCP 사업과 연계하여 오리 도축장 시설 역시 이에 준한 시행방안을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포장비에 대한 지원을 축종에 따라 보다 현실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오리고기 수출농가에 대한 일정액의 사료비를 지원하여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오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오리고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육업계는 기존 오리사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올인 올아웃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시설을 보다 현대화하여 사육규모를 늘려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리업과 관련된 사업종사자들 역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시장의 시장조사나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홍보에 힘을 모아야 하며 경쟁 상대국의 오리시장 조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오리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